

111주년

道 日 기 념



포덕 160(2019)년 1월 18일

< 식 순 >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 전 봉 독(신앙통일과 규모일치)
1. 천덕송 합창(기념송1-3)
1. 기 념 사
1. 천덕송 합창(도일기념가)
1. 심 고
1. 폐 식

※ 축하행사 안내(천도교연합합창단 공연 등)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춘암상사께서 의암성사로부터 천도교 4세 대도주의 도통을 이어받으신지 제111주년이 되는 도일기념일입니다. 천도의 도통이 수운대신사에서 해월신사, 의암성사, 그리고 춘암상사로 이어져 온 사사상수(師師相授)의 전통은 우리 교단의 근간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오늘 춘암상사 승통 기념일을 다함께 축하하면서 춘암상사의 거룩한 일생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생활의 사표로 다시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춘암상사께서는 포덕전 5(1855)년 2월 1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하포리 막동에서 태어나, 포덕 24(1883)년 동학에 입도하신 후 엄격한 수행과 독공수련을 계속하셨습니다. 포

덕 34(1893)년 보은 취회에 즈음해서는 덕의포 대접주에 임명되었으며, 동학혁명 당시에는 예산 일대는 물론 내포 전역에서 동학군을 이끌고 혁혁한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좌절되고 해월신사께서 순도하신 후에는 벼랑 끝에 놓인 교단의 운명을 짚어준 의암성사를 보필하시면서 도인들의 조직을 재건하는 데 성력을 다하셨습니다.

의암성사께서 중국을 거쳐 일본에서 세계문명의 대세를 조망하실 때에도 이를 뒷바라지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와 일본을 오가면서 천도교 대고천하의 기틀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교단의 제도화와 근대화를 위해 수많은 사업들을 전개하실 때에도 춘암상사께서는 대도주로서 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으며, 포덕 49(1908)년 1월 18일, 의암성사의 명(命)에 따라 천도교 4세 대도주가 되셨습니다. 그날 이후 30여 년 동안 춘암상사께서는 질곡의 시대 상황과 시비 분분한 교단상황에서도 우·목·눌의 한길로 교단의 정신과 토대를 수호하셨습니다.

특히 3.1운동 당시 의암성사의 특명으로 유시문에 따라 교단의 장래를 위한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즉 의암성사께서는 일찍이 교단의 책임을 춘암상사에게 전수한 것은 이미 10년 전의 일임을 재확인하시고, 기미년에 즈음하여 당신이 정치방면으로 나아가므로 춘암상사는 우리 오만년 천도교의 중책을 잘 지켜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날 이후 춘암상사께서는 무극대도의 도통을 이어받은 정통성 위에, 세 분 스승님의 뜻을 온몸으로 묵묵히 감당하시고, 교단 안팎에서 다가오는 이중삼중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며 천도교 현도시대를 경영하셨습니다. 의암성사 순도 이후에는 6.10만세운동과 민족대단결운동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셨고, 무인멸왜기도운동을 결행하시어 천도의 정신이 다시금 명맥을 살리고 이을 수 있도록 지도하셨습니다.

춘암상사는 우 · 목 · 놀의 지도력을 발휘하신 분이며, 무엇보다 스승님을 보필하는 지도력의 사표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천도교의 대도주직을 승임(陞任)하신 포덕 49년부터 의암성사께서 순도 순국하신 포덕 63년까지 25년 동안 춘암상사께서는 대도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시고, 한편으로는 교주이신 의암성사를 보필하는 최고의 참모로서 그 소임을 한 치도 소홀함 없이 수행하셨습니다.

실로 의암성사의 천도교 발전을 위한 교단적·국가적 모든 성취의 이면에는 이러한 춘암상사의 도력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결코 올바른 역사 계승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춘암상사를 수운대신사, 해월신사, 의암성사와 마찬가지로 스승님의 반열에 자리매김하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도교인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재삼 돌아보는 춘암상사의 필생과업은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춘암상사께서 이

말씀에 그토록 간절하셨던 까닭은 춘암상사께서 겪어 나갔던 시대가 바로 거짓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내내 교단은 일제의 공작에 의하여 분열을 거듭하는가 하면, 그들의 농간에 의하여 거짓과 위선이 횡행하는 정글과도 같은 시대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1차 대전의 승전국들은 입으로는 인도와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식민지 확장 전쟁과 약육강식을 자행하는 거짓의 과도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춘암상사의 “거짓말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되새김에 있어서 실로 비통하고 애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일생을 수련으로 일관하신 춘암상사의 삶에서 나온 것이며, 당신의 삶 전체로써 증명하시고 실천하신 말씀입니다. 일찍이 춘암상사께서 지도하셨던 무인멸왜기도운동이 일제 당국에게 발각되어 가택수색을 당하였을 당시에도 춘암상사께서는 홀연히 혼수상태에 빠져서 일제의 심문을 모면한 일이 있

습니다. 이것은 바로 춘암상사께서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목숨 줄을 놓아 버리는 살신성인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무한대로 확장됨으로써 모든 개개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정의를 갉아먹고, 불의의 온상이 되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여 오늘날 세계물질문명의 수준이 극에 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행복보다 근심걱정과 불안공포가 나날이 커져만 가는 것은 바로 비등하는 거짓 정보와 주장들이 도고일척(道高一尺)에 마고일장(魔高一丈)으로 확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자위심 하는 죽임의 문명을 동귀일체 하는 살림의 문명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에 죽고 참에 사느니라.”고 하신 춘암상사의 가르침은 이 시대의 지표이자 사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동덕 여러분!

우리 교단은 올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3.1운동 100주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며,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행사를 처음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밖에 지난 3년 동안 씨를 뿌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교회제도로써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격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오늘의 천도교를 제도적으로, 교리 사상적으로, 그리고 수양과 체천행도(替天行道)의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춘암상사의 “거짓말 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뼈와 살을 갱신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짓에 의지하여 새날을 기약하는 것은 모래로 성을 쌓는 일이요, 모래 위에 탑을 짓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동덕 여러분!

오늘 춘암상사 승통 제111주년이 되는 도일기념을 맞이
하면서, 천심을 회복하여 천리에 따라 천명을 돌아보며, 거
짓말을 하지 않고 정성과 공경으로 참을 행하는 신앙심을
회복하여, 춘삼월 호시절에 또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0(2019)년 1월 18일

천도교 교령 이 정 희 심고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득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자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도일기념가

Andan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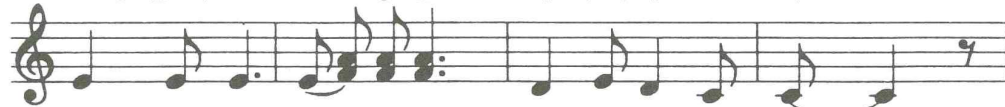
1. 기 뵈고 나 오 늘 은 도 일기 념 일 -
2. 기 뵈고 나 오 늘 은 도 일기 념 일 -



춘 암상 사 승 통 하 여 대 도 주 되 신 - 날
춘 암상 사 승 통 하 여 대 도 주 되 신 - 날



스승님의 덕 - 화는 크고도 높 - 아 -
스승님의 도 - 품은 사해에 넘 - 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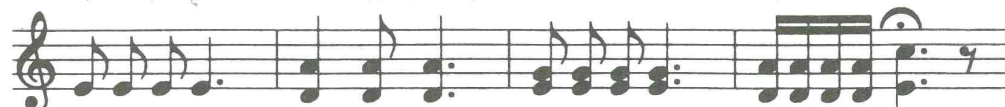
우 러 러 보 - 아도 가 - 없 어 라 -
우 러 러 볼 - 수록 태 산 갈 아 라 -



덕 산 의 맑 은 정 기 천도의 꽃 내 음 -
충 의 의 굳 은 기 개사 인 여천향 내 음



멀 왜운 동 영 도 하 여 민 족 - 구 했 - 네
자 나 깨 나 팔 십 평 생 대 도 - 지 켜 - 네



(후렴) 후천 개벽 새 세상 이어주신 춘암상사님



우 리 도 그 - 정성 따르오리 - 다 따르오리 - 다 -

信仰統一과 規模一致 (신앙통일과 규모일치)

각자가 자기의 습관천을 믿지 말고, 오직 자아본래의 한울님을 믿는 것으로써 신앙을 통일하라.

교회의 전체 행복은 교인의 신앙통일과 규모일치가 되는데 있느니라.

신앙통일은 먼저 정신통일에서 시작 되는 것이니, 경전의 문구만을 따져서 연구하지 말고 오로지 대도의 진리를 직각하는데 노력하여, 조용히 한울 땅이 생기기 이전의 소식을 들으라.

다음은 규모일치니 규모일치는 곧 행동통일이니라.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의 힘으로 판단하여 제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하지 말고 오직 사회(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을 절대 엄수하라.

가족에는 가족사회 국가에는 국가사회 교회에는 교회사회 인류에는 인류사회가 있으니, 우리교회의 인내천의 일대목적과 성신환신.규모일치.지인공애의 삼대강령과 성경신법 사과와 주문.청수.시일.성미.기도의 오관실행은 교회로서 제정한 유일한 규모니라.

세계는 넓은 바다와 같고 우리 교는 기선과 같으니, 교인이 교회생활 하는 것은 기선 위에서 해상 생활을 하는 것과 같으니라. 기선은 구십구분을 물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 교인은 구십구분을 한울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라.

교인으로서 교회의 덕화를 알지 못함은 요순 때에 요순의 덕화를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나의 목적인 바와 여러분의 목적인 바가 이미 같고, 여러분의 목적인 바와 대신사의 목적인 바가 또한 같은 것이니,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신이 일치해야 하느니라.

우리의 본래 정신이 꼭 일치하고 보면 천하가 달려들어 움직이고자 해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교인으로서 만일 이러한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겠는가. 목적달성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먼저 진실하고 일치한 정신으로 과거의 정신을 쇠신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조건은 신앙을 구십구분으로 하고 규제를 일분으로 할 것이니, 교회에서 제정한 일분의 규제를 한개 자기의 지력으로 판단하여, 만약 이것을 준행치 않으면 이는 교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라.

일분의 규제를 위반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십구분의 신앙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교의 중요한 규제는 오관실행이니 교인된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실지로 체행하라.

< 춘암상사 어록 >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에 죽고 참에 살리라』

『제 할일을 다 하고 제 잠을 다 자고 도는 언제 닦겠는가』

『병어리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유형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무형한 한울을 섬기랴』

春菴 朴寅浩 上師 略歷

포덕전 5년(1855) 2월 1일

충청도 덕산군 장촌면 막동에서 탄생하시다.

처음 이름은 박용호(朴龍浩), 고친 이름은 인호(寅浩),

자는 도일(道一), 호는 춘암(春菴)이시다.

아버지는 박명구, 어머니는 방씨이시다.

12세때 남씨 부인과 결혼하시다.

29세에 동학에 입도하시어 의관을 벗지 않으시고

10년간을 독공수련 하시다.

포덕 35년(1894) 갑오동학혁명 기포에 참가하시어 5만의 동학군을

통솔하시며 덕의대접주로 활약하시다.

포덕 48년(1907) 차도주직을 받으시다.

포덕 49년(1908) 1월 18일 대도주직을 선수 받으시다.

포덕 60년(1919)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의 한 분으로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어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시고

이듬해 10월 31일에 출옥하시다.

포덕 79년(1938) 멀왜기도를 지도하시다.

포덕 81년(1940) 4월 3일 환원하시니 향년 86세 이시다.